



순창군, 부안해양경찰서와 수상레저사업장 점검

순창군은 지난 10일 부안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반은 순창군 안전재난과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및 관리 상태 △안전요원 배치 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 현황 △영업신고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국민연금, 임실 자매결연마을서 재능기부 봉사

국민연금공단이 자매결연마을을 찾아 가스와 전기 등 주거환경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상생과 생활안전 확보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9일 임실군 지사면 옥산마을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단의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안전경영실 직원들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단은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지난달 24일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거환경을 점검하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안전시설 개선이 시급한 10가구를 선정하고, 각 가정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행사 당일 직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 가스레인지를 교체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밸브 자동잠금장치와 화재감지센서를 설치했다. 또한 오래된 형광등과 콘센트를 교체하는 등 갑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소방서, 올 하반기 전북청년 직무인턴 운영

남원소방서는 지역 청년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전북 청년 직무 인턴' 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 인턴은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청년허브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남원소방서에 배치된 청년 인턴은 7월 13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총 5주(25일) 동안 행정 및 예방 실무를 직접 체험, 남원소방서는 실습생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출근 전 근무지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마쳤으며, 인턴십 기간 체계적인 직무 배정과 근무일지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턴십은 전북대학교 현장실습 학점과도 연계되어 참여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 축적은 물론 학업적 혜택까지 함께 제공될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자봉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 열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출범... 재난 대응 전문성·현장 대응 역량 강화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민재)는 13일 센터 2층 강당에서 자원봉사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군산시의 군산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 개인봉사자 등 총 18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로, 앞으로 재난 피해 현장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침수·화재 가구 복구 지원, 현장 운영 지원 등 다방면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재난 대응 교육과 훈련을 통해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자원봉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취지와 역할을 공유하며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

졌다. 이어 군산시 안전총괄과 황동현 주무관(방재안전직)이 '군산시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 사례'를 주제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송천규 센터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평소 철저한 준비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재난 유형별 대응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단원들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남원농협, 순천원에농협과 친선 축구대회 개최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순천원에농협(조합장 채규선)과 최근 임직원 및 작목반 40여 명이 농심천심 친선 축구경기와 교류 행사를 개최하며 상생협력의 뜻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양 농협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 참가자들은 경기를 통해 우의를 다지는 한편, 농산물 유통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 농협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생산·유통 분야의 정보 교류와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기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순천원에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서, 무장음성 컴퓨터화장실에 안심화장실 인증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가 고창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안심화장실 인증 사업'을 확대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경찰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화장실 인증제는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촬영 및 강력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자체 협업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이다.

고창경찰청은 고창군과 함께 공중화장실 내·외부의 방범 시설(비상벨·CCTV 등)을 정밀 진단·보완한 뒤, 범죄 안전성이 검증된 화장실 출입구에 안심화장실 인증패를 부착하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 관광지인 고창읍성 공중화장실을 안심화장실로 지정해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군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무장읍성 컴퓨터 공중화장실을 선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농기센터, 스마트팜 특별반 현장실습 교육 추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대학 스마트팜 특별반(기초) 현장실습 교육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특별반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500시간 과정으로, 스마트팜 시설과 환경제어, 수경재배, 생육관리 등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실습 교육은 7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선도농가 5명과 교육생 15명이 참여한다. 실습 품목은 상추, 딸기, 토마토로, 교육생들은 품목별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운영 전반을 현장서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높이고 있다.

남원시 예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육성 과정으로, 청년농 영농 정착과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조용곤 교수, 대한수혈학회 차기 회장 선출

전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용곤 교수가 국내 수혈 의학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수혈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진단검사의학과 조용곤 교수가 최근 열린 2026년도 대한수혈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평의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조 교수의 공식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회장으로서 총회와 평의회를 주재하고 학회를 대표하는 한편 주요 학술대회를 이끌며 국내 수혈의학 발전과 학술 교류를 총괄하게 된다.

대한수혈학회는 1982년 창립된 국내 대표 수혈의학 학술 단체로, 전국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연구자들이 참여해 학술 연구와 교육, 수혈 가이드라인 제정,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수혈환경 조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조 차기 회장은 전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병원 진단



단검사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과 진단검사의학과장, 의과대학 주요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수혈학회에서도 다양한 학술·정책 활동을 펼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수혈의학과 혈액은행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전북대병원 수혈관리실장을 맡아 혈액관리 수준 향상과 수혈 안전 분야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조용곤 차기 회장은 "대한수혈학회는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수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회의 학술적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8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